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젠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4월 8일 (토) 제 1917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부활은 흐르는 진리

부활은 구전(口傳)되어 온 신화(神話)가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소설도 아니다. 도도히 흐르는 진리이다. 그렇다. 어느 시간, 일정한 장소에만 묶여 있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도 불변하며 적실(確實)한 것이 진리이다. 부활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그 과거는 기독교의 출발이었다. 필자가 8년 동안 사역했던 대전에는 '뿌리 공원(公園)'이 있다. 넓은 공원 곳곳에 자기 집안의 뿌리가 어디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글들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적힌 글을 보고 웃음을 머미거나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뿌리'는 1976년 출판된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제목이기도하다.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 했었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했다고 고소당하기도 했던 소설이다.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미국의 근대사(近代史)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생각도 갖게 하였다. 기독교의 뿌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부터 솟구친 부활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왔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든든한 뿌리이다. 견고한 근본이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활은 오늘도 진리이다. 어제는 확실히 그랬었고 내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어두움을 전혀 몰아내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천여 년 전, 빈 무덤으로부터 오늘도 거침없이 걸어오셨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날 아침의 무덤 앞의 큰 돌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박해와 근래(近來)의 온갖 사상(思想)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걸음을 멈추어 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돌로 진리를 막을 수 없었다. 칼로 진리를 죽일 수 없었다. 말로 진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이천년의 매일(毎日)이 그랬듯이 오늘도 부활의 축제이다. 되살아난 생명의 축제이다. 찬란한 빛의 축제이다. 화려한 꽃의 축제이다. 싱그러운 노래의 축제이다. 죽었던 것들이 아쉽게도 오늘날은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었는가. 부활이 극복 못할 오늘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절망, 불안, 실패, 두려움, 우울증일까? 없다. 일(-)도 없다. 부

활을 죽일 수 있는 세력은 무엇일까? 학문, 세상, 마귀일까? 없다. 하나도 없다.

부활은 미래에도 확실하다. 오늘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도 다가온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19) 묘지에 갈 일이 종종 있다. 죽어간 모두에게 묘비가 있었다. 어느 여인의 묘비에는 '기다림(waiting)'이라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죽음에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그 너머의 영원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왜 그 여인뿐이겠는가. 우리에게도 미래도 있고 그 미래를 넘어서는 영원도 있다. 나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무엇에 맡기겠는가. 과학도,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무력(武力)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미래 인류의 미래로 삼아야 한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감동을 끼친 목사님이 계시다. '오늘은 금요일,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다(It's Friday, but Lord's Day is Coming). 누구에게나 금요일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일, 부활의 날을 확인하는 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의 죽음을 벌써 넘겨버린 자가 어떤 미래를 염려하겠는가. 부활은 흐르는 진리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장엄한 진리이다. 어제 이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활을 영원한 노래가 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헌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부활 속시

부활의 영원한 꽃이어라!

돌문이 열리었다!
新새벽 흰 무리 피기 전
천지의 어깨 눌렀던 죄악의 무거운
돌덩어리, 하염없이 무너져 길을 열었다



박상희 시인

힘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오르신
십자가의 길,
오, 눈물 맺힌 고독의 하나님 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천지도 통곡하며 부르짖어
질곡마다 언덕마다 몸부림치던
하늘의 피 山脈줄기

악의 사슬 춤추던 그 곳 골고다 언덕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노라!
끝내 승리의 깃발 세운 사랑의 선포
鐵벽 같이 단단 성전의 휘장은
문을 열어 굴복했어라

절망의 캄캄한 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江물이 흘렀어라

마침내, 영광의 울동이어라
아버지 사랑의 영원하신 생명
新天地 꽃되어 찬란하여라!



시론 최혜근 목사



부활절특별설교 김성일 목사



CS 루이스 삶과 사상 산책 강태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동포 초청 부활주일 연합감사예배

"예수님 부활 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초청 합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기념 감사 축하 예배에
교인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4월 9일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3부:오후 2시)

장소: 미주양곡교회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213) 380-9377

설교: 지용덕 목사(1부,2부) 정시우목사(3부)



정시우 목사

미국장로회 한인 증경총회장
Amenida 그룹 이사장
양곡세계 선교회 이사장
한기부 미주 대표회 이사장



지용덕 목사

연세대학교(역사) 장로신학대학원(역사) 플로신학대학원(박사)
복음주의장로교 총회장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미주대표회장
남가주교협증경회 회장
연복세동문목사 회장(Chairman of 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연세아카데미 원장(Yonsei Academy(University) Chair Person)



시론

MZ 세대를 살리는 길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로 'MZ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한국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중 요즘 신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M은 밀레니얼(Millennial)의 약자로 1,000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1,000년의 시간을 한 단위로 말할 때 서기 2,000년은 두 번째 밀레니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무렵에 태어나고 성장한 아이들을 밀레니얼 세대, 혹은 M-세대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Z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Z는 약자가 아니라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Z를 말하며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면 흔히 2030세대(20대 30대의 젊은이들)를 말하며 한국 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세대와 Z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의 보급 정도입니다. M세대들은 아날로그 시대, 곧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도 포함되지만, Z세대는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에 대단히 익숙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MZ세대가 이전 세대의 가치관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

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 중의 하나가 남북통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Z세대(현 25세 미만)에서는 무려 45%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관도 40% 정도가 지원이나 협력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북정책에서도 북한을 개방하고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두 나라가 각각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번영 혹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사라져 가고 있으며 동족(同族)인가의 여부를 떠나 현실에서 누가 우리의 생존에 도움 혹은 위협이 되는

는지의 여부에 의해 친구와 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해코지 위협하는 동족인 북한보다 오히려 이전 세대에 아픈 역사를 가져왔던 일본을 더 가까운 친구로 보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대들을 바라보며 앞서 걷고 있는 우리 세대의 정치인들이 어디를 향해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더 깊이 생각하고 풀어갈 때입니다. 지나간 역사 없이 내일의 역사가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기억하면서도 그 역사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까지도 지난 역사의 고통스러운 도가니로만 끌고 들어가려는 패자의 정치와 사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 그들을 최고의 제자로 세우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롬.
hankschoi@gmail.com



급변하는 시대, SNS로 소그룹 섬긴다!

리더십저널, 소그룹 사역에서 SNS 활용 통한 유익 소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맡겨 주신 사역을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해내는 데 유익한 도구이다. 어떤 이는 '유목민처럼 성도와 함께 파도타기를 즐기라'는 뜻으로 SNS 사역을 이른바 '노마드 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처럼오늘날 사역을 하는 데 절대로 제쳐둘 수 없는 SNS를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 이를 소그룹을 섬기는 일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유익을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SNS를 활용하여 소그룹을 섬길 수 있을까(5 Reasons to Send a Weekly Email to Your Church or Small Group)?



1. 예배 설교나 강의 등의 요약본을 공유하기

지난 예배 시간에 선포된 설교나, 각종 모임에서 나는 강의 내용을요약본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다. 이로써, 예배에 결석했거나, 또는 참석했지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소그룹 구성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격려하기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말들을 전해 주며, 각기다른 형편에 놓인 소그룹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붙여넣어 줄 수 있다.

3. 성도들의 신앙 의식을 고양하기

간략한 묵상 글이나 강력한 인용 글, 또는 성경 본문이나 교리문답등을 공유하며

소그룹 구성원들의 신앙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이때 공유하는 글은 짧고, 시의적절하며, 구성원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4. 전도의 도구로 삼기

단순명료한 복음을 정기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지속해서 전하며, 때때로 소그룹 구성원이 구원 신앙적으로 대각성할 기회를제공해주어야 한다.

5. 도전과 권고의 메시지 전달하기

소그룹 구성원들이 예배나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는 특정 사역에 동참하도록 도전하고 권고할 수 있다. 구두로 전하는 도전과 권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SNS를 통해 추가로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메시지에 응답할 것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 886-4400(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행동과 도마의 고백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그 당시 십자가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라고 말한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의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믿음에 대해 의심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끼꺼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동기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성도인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다는 것을

부활절특별설교

능력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를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고,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대면합니다. 27절 "도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현대 시대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고 능력을 받습니다. 도마의 신앙고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도마는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해 깊이 믿지 않는 믿음을 배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사도들의 증거와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의심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도록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24-31



상기시켜 줍니다. 이 희망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고 인내할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준비를 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신자로서 우리 삶에 미친 심오한 영향을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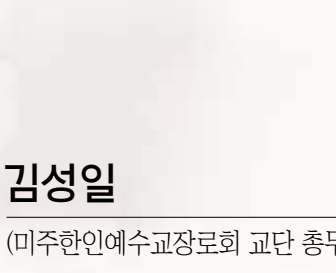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은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에서 보듯이 잠긴 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죽음을 이기는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능력을 줍니다. 로마서 6장 4-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와 연합하였으면 그의 부활에서도 정녕 그와 연합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그분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도마에게 겸손히 자신의 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겸손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열망을 보여 줍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성경 읽기,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의심을 고백하고 믿게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상처는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실재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의심과 믿음을 고백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도마의 신앙고백과 믿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28절과 29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사람일 뿐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초적인 믿음이며,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의심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의 믿음에서 개인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도마의 신앙고백에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도록 힘쓰십시오. 이처럼 도마의 신앙고백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겸손 모범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깊고 지속적인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쓴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victorville4u@yahoo.com



김성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 총무)

담임목사 청빙공고

워싱턴주(WA) Bellevue에 위치한 벨뷰한인장로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 소속 교회로서 현 담임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어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요건

1. KAPC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목회하실 분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어소통이 되시는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및 학력증명서
2. 목사안수증명서 및 2인 이상의 추천서
3. 자기소개서(목회철학, 비전, 계획 포함)
4. 최근 설교영상 2편(온라인 링크와 원고)

유의 사항

1. 제출마감일 : 2023년 4월 29일
2. 서류심사후 개별통지함
3. 보내실 곳 : bellevuekpc@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벨뷰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3105 125th Ave. SE, Bellevue, WA 98005
Website : www.bkpres.org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주 회 : **미주 가정선교회**
2. 일 시 : 2023년 5월 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 장 소 : **생수의 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참가비 : \$50(성인부부) 점심식사 제공 \$30(목회자 부부, 싱글)
5. 강 사 : **이재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쿠팡) 저자
6. 강의내용: 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
7. 기타 안내
 - (1) 참가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2) 신청서나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를 LLMC로 명기하시고, Rev. Jae Kun Lee (11908 Centralia Rd. #102, Hawaiian Gardens, CA 9071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교보 목회자아버지학교, 주사왕선교회,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진짜를 가짜처럼 전하지 맙시다!

목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3천년 전부터 예언이 시작되었다. 구약성경에는 대략 800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많은 예언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많은 예언들 중에서 이미 300가지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고, 나머지 500가지 예

언은 앞으로 이뤄지고 성취될 예언들이다. 이 예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우연히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의 895승 분의 1보다 더 낮다고 한다. 이 숫자는 우주의 펼쳐진 천체의 수를 다 합쳐도 이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10이라는 숫자에 0이 895개 붙는 숫자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다면 하와이 해변의 모래알갱이 하나를 갖다가 마이애미 해변의 모래를 3M를 파고 섞

은 다음에 그 모래 한 알을 찾는 확률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실상 가능하겠는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률이다. 그런데 이 확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뤄진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사역이 목회이고,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다. 따라서 우리 목사들은 이 절

대불변의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 어떻게 전해야 복음에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어올 수 있을까?

첫째는 목사가 믿고 체험한 복음 -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고급스럽고 세련된 빈 밥그릇을 갖다준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배고파서 쓰러져 가는 이들에게 서론도 좋고 감동 깊은 예화도 좋고, 세련된 설교자의 고상한 매너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저들은 지금 바로 목구멍으로 팔짝 삼킬 수 있는 밥을 삼기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제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빈 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복음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아니 죽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팔짝 삼킬 수 있도록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하는 시급한 시대가 되었다. 먹을 양식

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 - 복음 - 예수 그리스도 - 를 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세대가 되었다(암 8:11). 교회가 허약한 것도, 시끄러운 것도 결국은 복음의 배가 고픈 것이 원인이다. 양들이 배가 부르면 가만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법이다. 목사는 이 양질의 복음의 꼴을 확실하게 배부르도록 먹여야 하겠다.

둘째는 배부른 양들에게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현대 도시인들의 절반이 비만에 걸려있다고 한다. 양질의 영양을 과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움직이길 싫어하는 결과가 비만을 불러온다고 한다. 진짜 하늘 복음을 맛있게 먹었다면 내 안의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앉아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좋고 감격해서 잠잠하게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 양들로 하여금 오며 가며 서로 사랑하다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새끼 양을 낳는 목장이라면 금

세 울타리가 차고 넘칠 것이다.

어느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외치고 전도에 열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결에서 가짜 약장수가 복음 치면서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불러 모았다고 한다. 전도자는 하도 신기해서 그 약장수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나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면 고맙겠소이다' 그 가짜 약장수가 하는 말 -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말하고,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설교자 들이여!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인류들을 구하시려 십자가를 향해 다가오시는 고난 주간에... 강력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결코 가짜처럼 전하지 맙시다.

jkym47@gmail.com

사역자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2)

CT, 전쟁으로 인해 "고아목사" 가 된 우크라이나 목회자/평신도들의 사역 현장 밀착 취재 보도

인구가 밀집한 키이우 교외 비쉬네브의 어느 토요일 저녁, 겨울이라 낮이 짧았다: 오전 8시에 하늘은 쪽빛으로 남아 있다가 오후 3시가 되자 어두워졌다. 다가오는 눈보라의 두꺼운 구름이 어렴풋이 보였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돌아가며 정전상태가 되어 도시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침략 당시 인구 42,000명이었던 이 도시는 중세 유럽 마을처럼 어두웠다. 가로등과 건물 표지판이 꺼져 있었다. 아파트 건물들은 발전기가 있는 여러 개의 유닛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을 제외하고는 무색의 정육면체처럼 보였다. 차량 헤드라이트가 눈길에 비추자 보행자들은 헤드램프와 손전등을 갖고 방판인 인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공공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구원교회(Salvation Church)는 오아시스처럼 빛이 나고 복되었다. 커피와 구운 빵들이 공기를 따뜻하게 했다. 도시가 정전된 시간 동안 전력을 제공하는 비쉬네브의 유일한 공동체 건물이 바로 이 교회이다. 매일 식당과 지하실 등이 청소년수련관을 열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몸을 데우며 따뜻한 카푸치노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키이우 오블라스트는 러시아 군대가 수도 주변의 주요 도시들을 급습했던 침략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먼 길을 돌아왔다. 지난해 말 어느 주일,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찼다. 목사들은 새신자들을 세례 수영장에서 세례를 주었다. 불과 몇 달 전에 지뢰, 버려진 탱크, 시체들이 있는 폐차장이었던 키이우 외곽의 마을 보르젤에 있는 새 교회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삼점들과 약국들 그리고 커피 가판대가 열려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맥도날드에서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유아차에 태웠다.

구원교회에서는 운동복을 입고 커다란 흰 깃털을 들고 있는 소녀들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해 춤 동작을 연습했다. 그들은 사랑에 예수가 왕이라는 문장이 새겨진 천장 아래에서 반짝이는 음악에 맞춰 움직였다.

"저기 있는 가장 큰 아이가 제 딸이에요"라고 미콜라 사브추크 목사가 가리키며 말했다. 사브추크에게는 15살 딸과

13살 아들, 두 자녀가 있다. 침략 둘째 날 러시아 탱크가 집에서 가까운 도시에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는 곧바로 가족을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데려다주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브추크는 주일 예배에 맞춰 키이우로 돌아왔다. 지난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부활절에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다.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까?

사브추크는 "겉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국가적으로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정도를 가능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변화, 일상적인 생존의 기적들 통한 회복력, 끈기, 그리고 일상의 통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전쟁 초기, 구원교회는 교인 3,000명 중 90%를 잃었다. 절반은 해외로 대피했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서부로 대피했다. 2월 24일의 침공 이후 첫 주일, 사브추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지 궁금해하며 강단으로 걸어들어갔다. 300여 명, 약 10퍼센트의 교인이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다. 교회 내 16명의 목사 중 절반이 대피했다. 사브추크는 남아 있는 리더들의 정신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떠나라고 충고했다.

사브추크는 헤르손의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끊임없는 불확실성은 고통을 수반한다. 사브추크는 침략 5일 만에 그 충격으로 인해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 오열했다.

하지만 한탄한 시간도 있었지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었다. 약, 음식, 공급품 등이 당사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모든 가계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피난처가 필요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했고, 교회가 원조를 제공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두드렸다.

신도들과 목회자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불신자가 교회로 오고 있다고 말한다. 구원교회는 주일 예배에 10분 분량의 설교에서



새신자를 위한 기본적인 복음을 설명했다. 사브추크는 매주 일요일 20~40명의 신인들이 교단의 전화에 응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원교회는 평소에 도 전도를 중시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박함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인생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한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쯤 매우 특별한 시기이다"라고 발레리 안토니우크 침례교 회장이 말했다. "이런 시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지 알 수 있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본다. 수확할 시기가 올 것이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사역자 중 특히 외상 치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안토니우크에 말하면, 침략 전에도 침례교에 관련된 500여 명의 목회자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신학교에 지원하려고 고민했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역자들이 '2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훈련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르핀에서 열린 침례교 전략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목회자와 리더십 200여 명이 모여 전쟁이 자신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했다. 피로한 여정이었지만 큰 감동도 있었다. 전시에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사역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사역 중이다."

라고 안토니우크는 회의가 끝나자 그들에게 말했다. "전쟁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 '그때가 2023년이면 받아들여야.'"

헤르손 해방 이틀 만에 파벨 스몰야코프가 갈보리침례교회로 곧장 향했다. 러시아 언론에 그가 고아 밀매범이라고 보도된 후, 그는 부활절 일주일 뒤에 오데사로 대피했고, 7개월 동안 헤르손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까지 운전해서 가는 도로를 참혹했다. 지뢰밭과 거리에 훼손되지 않은 채 놓인 시체들 사이로 차를 운전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신도들과의 재회는 즐거웠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스몰야코프가 마침내 그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상할 만큼 고요하게 느껴졌다. 침대 시트, 머그잔, 익숙한 주름과 장식 품 등 모든 것은 정확히 반년 전에 그가 두고 온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바깥세상이 바뀐 사이, 집 안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았다.

스몰야코프는 "돌아온 사람들과 떠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 엄청나게 바쁘다"고 말했다. 지역 지도자로서 그는 지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피난자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는 경고한다. 많은 교회가 흩어졌다. 교인 400명 중 4분의 3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역에 흩어졌다. 6명의 목회자 중 스몰야코프만이 헤르손에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 기간 내내 갈보리교회에 남은 교인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매일 모여 빵과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날이 갈수록 많은 것을 더하셨다.

최근 갈보리교회에는 300명의 새신자들이 등록했다. 스몰야코프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달라져 낯선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힘들었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행복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헤르손에 있는 제임스의 교회도 전쟁 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성도 400명 중 50명만 남아 있다. 이전에는 주일 예배 때마다 150명 되는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지곤 했다. 이제 겨우 20명만이 남았다. 매일 러시아의 포격을 겪으며, 제임스는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몇 주 전, 내가 방문했을 때 그는 나를 어둡고 추운 예배당에 데려다주었다. 화려한 무대 조명과 미디어 장비가 있는 큰 강당이였다. 한때는 유명한 공연을 했던 큰 무대이기도 하다. 이제 더는 미디어팀이 없다. 연극팀도 떠났다. 드럼이나 기타를 연주할 사람이 없다.

지난 12월, 그들은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에게 활기찬 크리스마스 공연을 선보였다. 2022년 당시, 제임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녹음된 찬양곡

을 연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임스 주변 교회 곳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이 든 여성들은 배급을 위해 쌀을 작은 자루에 부었다. 식당을 잃은 요리사가 아내, 장모와 함께 교회 부엌에서 배추와 으깬 감자를 끓였다. 제임스의 아내는 종일 바빠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며,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며 뛰어다녔다. 12명의 자원봉사자가 교회 창고부터 배달 트럭까지 줄지어 서서 연결해 다른 교회에서 기부한 음식 가방을 모두 함께 내렸다.

밖에서는 러시아 로켓의 폭발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고, 자주 울리는 소리에 교통 경적처럼 배경으로 흐려졌다.

"예전의 예배가 그리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제임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전에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임스는 젊지만 동시에 노쇠했으며, 활기차지만 지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작년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었지만, 아마도 그가 말하는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든 활기찬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언젠가 한 마을에 음식과 물자를 배달하던 중, 불과 몇 분 전 자신이 지나간 길에서 러시아 탱크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적이 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했다. 자신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게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나아가기만 했다.

그와 이야기하는 도중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생각했다. "헤르손에 남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후회요? 아니! 아니요! 절대!" 제임스가 말했다. "우리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과 같은 사역자 한 명이 농담을 했고, 다른 한 명은 킁킁거렸다.

제임스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그는 눈을 정그리며 웃었다. 최전방에 있게 될 줄 몰랐고, 이것들이 그의 마지막 날들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기꺼이 교회와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부모만큼 자식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큰 사람들이 없음을 보게 된다.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을 가보면 쉽게 기러기(?) 엄마들을 보게 된다. 이유를 물으니, 아이가 어릴 적에 주재원으로 한국을 떠나왔는데, 어느 일정시 기동한 한국에서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연스레 한국의 입시 지옥의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명문대학에 특례로 입학하는 길이 열려있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다. 부부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도 오직 한 가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롯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이민의 땅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물론, 미국 이민자들의 상황은 다른

며 그 편안함에 만족해 할 것인가? 차라는 것이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결국,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 자신은 정작 그 복을 누리보지 못하면서, 자식 좋은 일(?)만 시키는 유산 증여자가 될 따름이 아닌가. 자식이 고마워한다면 잠시 기분은 좋겠지만, 그러나 정작 놓쳐버리는 일이 있다. 많은 열심의 특성 때문에 정작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로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말씀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실은 게으른 것에 비하면 백배 천배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삶의 자세이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결과가 자식들이 부모도 잊어버릴 만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코비드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TV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부작용으로 남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자기의 귀에 합당하여 지지하는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본다.

운전하는 사람들도 출퇴근 동안 좋은 강사들의 말씀이나 세미나, 강의들을 듣는다.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영적인 삶에 큰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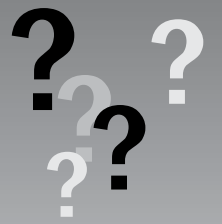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진중하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본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들어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외톨이 신앙이 아닌,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의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많은 부분에서, 익숙해진 편리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비정상화, 신앙이 타성의 관성에 젖어버린 현실이다. 자신의 영혼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자신의 영혼을 먼저 교회앞에 예배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오늘날 미국은 Pax America의 힘으로 전 세계 경찰국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과거의 영국이 지금은 크리스천이 힘을 상실하고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에도 기독교적인 가치로 볼 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셀비치에서 이희은

기독교 국가 영국이 시급한 '선교지'로 미국은 안심할 수 있는가...

A: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운 나라로서 하나님을 찾는 청교도들의 신앙과 성경적 정신으로 이 미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이후 기도와 말씀이 금지된 후에 학교에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는 기독교 정신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 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36년 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는 35년간의 선교 사역을 신실히 감당하고 1974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 돌아간 뉴비긴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국에 돌아와 목도하게 된 서구 세계는 이미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 잠식되어 버렸고, 그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독교 국가라고 여겼던 영국이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 삼켜져 말 그대로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한 '선교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점점 영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기독교적 가치에서 볼 때 부정적인 요소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1) 미국은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다. 전 세계 포르노산업의 89%가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르노 산업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 2) 미국은 1973년 이후 40 Million innocent babies 즉, 4천만이 넘는 유아들을 낙태시켰습니다. 10대 청소년들만해도 일년에 100만명 이상이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 3) 유전학의 타락으로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보이고있고, 각종 피조물, 고양이, 거미, 염소, 돼지등의 복제실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4) 미국은 이제 Gay marriage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를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므로 아이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과 가치관의 혼돈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 5)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건만 미국은 계속해서 Evolution-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라고 외치는 미국이 하나님을 학교 캠퍼스에서 미국 정부에서 밀쳐내고 있습니다.
- 6) 아동학대 및 어린이 성적학대 (child sexual abuse)는 유행병처럼 전 미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60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어릴 때 아동 성적학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 7) 그 어느 때보다 이혼율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 중에 6명만이 친아빠, 친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 8) 미국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른다.
- 9) 간통 죄와 음행은 미국에서 흔한 스포츠처럼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성병이 폭발적으로 번지고있다.
- 10) 미국안에서 살인이 너무 흔히 일어나고 있어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 11) 미국안에서 가짜 종교들이 전염병처럼 생겨나고 있다.
- 12) 그 어느 시대보다 현재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고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알림

다음주 신문(4월15일)은 부활절로 휴간 합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위험한 부모세대, 믿음과 가르침-

나라 이민자들 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시작된 이민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 피땀 흘려 일하더라도 자식을 성공 출세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한 만큼의 실망의 언어를 쉽게 쏟아낸다. 한마디로 헛 살았다는 것이다.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밥맛을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민자 가정의 이런 어려운 모습에 대해,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통 치듯 남 얘기하듯이 말하기에는 자녀교육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라는 위치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품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상황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생각하고 찾게 된다. 과연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인가? 광야 같은 인생, 승리의 길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한가지이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자녀가 말씀에 청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가장 급한 것이 있다. 부모세대가 먼저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열심과 고생의 이유

이민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주일을 지키며 쉬는 것도 불안해할 정도로 열심이다. 그런데 실제, 그 열심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나친 욕심이 아닌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돈이 많다고 하루 다섯끼 여섯끼를 먹을 것인가? 집이 크고 비싼 집이어서, 이방 지방 옮겨다니면서 방 자랑하며 잠을 설칠 것인가? 좋은 차를 가졌다고, 차안에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

이거적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더 나아가 부모의 배경을 믿고, 삶과 세상에서 여유부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무리한 이민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상해 버렸다면, 스스로에게 제대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인생경영을 잘하며 산다고 할 수 있는가?

대신 살 수 없는 인생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한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싸움은 부모가 대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저들 스스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녀들을 대신하여 그 인생을 살아 낼 수 없다는 말이다. 자녀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보고, 스스로 영적인 적들과 전투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는 피땀 흘려 수고하는 일로부터, 조금 더 진정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며, 부모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듯이, 부모세대가 그 본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다. 삶의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 피땀 흘려 수고한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고마운 일들만으로는 자녀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머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부모세대의 신앙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작금의 부모세대의 신앙형태는 위험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교회를 오래동안 빠지는 성도에게 "말씀 같이 듣자"고 했더니, "유튜브로 좋은 강사님들의 말씀을

까워서 한 번에 두세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연구자들은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두배, 세배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는 못한다. 수박 겉핥기만 할 뿐이다.

유튜브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의 고백이다. 영상분석을 해보면 설교전체를 고스란히 듣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모두가 적당하게 한번 들어보겠노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영적인 유익을 크게 끼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런 지런 말씀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영양은 공급되는데 운동이 되지 않는, 마침내 영적 질병이 유발되는 이상한 신앙구조가 될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듣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은 신앙 강좌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한시간에 구별된 정한 장소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고, 백성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이다.

공동체속의 실천적 은혜

바보는 수천번 수만번 결심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 삶의 실천적인 은혜를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기적 개인주의가 득세한 결과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깨달음을 가지지만, 휴지 쓰레기 하나를 제대로 줍지 못하는 영성에 불교한 것이다.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를 살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놓치는 것을 본다. 혼자가 편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새 언약의 교회도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공동체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 "말씀"이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깊은 신학적 논의를 배제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같이 "아멘"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관객석이 다 채워진 않았지만 박찬욱 감독 특유의 은유와 미장센들 그리고 박해일 탕웨이 두 주연배우의 촘촘하고 세밀한 연기와 훌륭한 조연들과 함께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은 영화 내내 빈틈없이 충만했다. 정훈희, 송창식 가수 듀엣의 '안개' OST가 엔딩크레딧과

간을 오랫동안 가졌다. 개인적인 나의 영화 감상은 그것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이라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지는 슬픔보다 이별을 결심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마음과 과정 말이다.

들의 이야기가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는 환호를 받지만, 겸손하게 새끼나 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러 임성하시는 예수님.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 예수님과 좌우 십자가에 달리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으로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죄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들

유월절의 어린 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Happy Easter!!

서로다른 결심@예루살렘

스포츠,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코리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요즘엔 더 나아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볼 수 있다.

어질 결심: Decision to leave) 영화는 미국 내 대도시 개봉관에서 개봉하여 감사하게 남편과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해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 분)를 만나고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함께 영화관에 번져갈 때 다른 관객과 함께 우리 부부는 기립박수를 쳤다. 감독과 배우들의 영화제 수상소식과 뉴욕타임즈, BBC, 가디언등 주요 해외 매체들이 2022년 최고의 영화 20선 선정은 당연했다. 영화를 관람 후 나는 한동안 OST를 들으며 영화 줄거리와 내용에 대한 리뷰와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찾아 읽어보는 시

광장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 결심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사자성이 작심삼일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려준다.

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서 비싼 것을 허비하였다 고 비난하며 결국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기를 결심하는 가롯 유다. 셋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지만 기도는 함께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단언하고, 결심했지만 결정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사람

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피 우는 우리 모두에게 사울 만에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틱톡, 엡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벌금 200억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를 내게 됐다고 B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이날 틱톡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ICO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의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ICO는 틱톡이 이용자를 파악해서 아동의 이용을 막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CO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CO는 벌금 부과에 앞서 지난해 틱톡에 사전 통지를 했다.

틱톡 측은 ICO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지난해 제시된 2700만파운드에서 대폭 줄어든 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4만명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美하원의장·대만 총통, 미국 땅에서 첫 회동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미국을 방문해 케빈 매카시 미하원의장을 만난다. 대만 총통이 미 본토에서 권력 서열 3위의 하원의장과 회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 측은 "오는 5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대만 총통과 초당적인 만남을 주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차이 총통과의 만남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29일 중미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 길에 올랐다. 그는 순방가는 길에 뉴욕에 들러 하킵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만났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LA를 방문해 공화당 소속 매카시 의장을 만나게 됐다.

차이 총통은 이날 벨리즈 국회에서 "일부 국가가 우리의 우의를 훼손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는 공공의 가치와 평화로운 미래 비전에 기초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미 국가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한 중국과 수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존 케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대만 총통과 마찬가지로 차이 총통도 미국을 6번 경유했으며

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중국이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총통부는 성명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교류하는 것은 2300만 대만인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측이 차이잉원의 경우 방문과 매카시 의장과의 만남을 안배하는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주재 중국 총영사관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만 3만5000명 트럼프 재판 하루 전 속속 죽인 뉴욕

3일 이후 도착한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위 블록은 전체가 통제 상태였다. 뉴욕경찰은 타워 출구가 있는 골목과 양옆 도로를 바리케이드와 경찰 차량으로



검열이 에워싸 출입을 차단했다. 트럼프타워 맞은편 철제 바리케이드 뒤로 취재진들이 길게 늘어섰다. 그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팻말을 든 소수의 지지자를 찾을 수 있었다. 트럼프타워나 트럼프 지지자들과 사전을 찍기 위해 행인들이 멈춰서는 일 외에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당시의 삼엄했던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죄수복을 입고 트럼프 분장을 한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 인근에 있었지만, 서로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뉴욕경찰은 맨해튼 대법원의 기소 결정 이후 3만5000여명의 경찰관을 총동원해 경비에 나섰다. 트럼프타워에서 맨해튼 형사법원으로 향하는 블록 교차로에선 순찰하는 경찰관들이 자주 목격됐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마녀사냥, 한때 위대했던 나라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글을 올린 뒤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다. 미국을 상징하는 푸른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전용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 차량으로 트럼프타워로 이동했다. 그는 건물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측면 출입구로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첫 기소 사례를 담기 위해 주요 방송사들이 그의 이동을 생중계했다.

야후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 기록 위조 등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사업 기록 위조 혐의를 경범죄가 아닌 E급 중범죄로 높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머그샷을 쏘는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브래그가 기소 사항을 불법 유출했다.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기소에 대해 침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미네소타주 에너지기업을 방문해 일자리 성과를 홍보한 뒤 "MAGA 공화당원은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국

경제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치솟는 집값에... 거리로 몰려 나온 포르투갈 시민들

포르투갈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와 집값에 항의하며 1일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였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주말 수도 리스본을 비롯한 도시에서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고 2일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홈 투 리브'(Home to Live)라는 단체와 다른 단체들이 함께 조직했다. 시위대는 '집을 갖는 것은 권리지(집주인의) 특권이 아니다', '집에서 쫓아내는 걸 멈춰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나와 정부에 대해 마련을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 눈시우 헨지는 "내 연봉이 리스본 평균보다 높은 데도 집값이 너무 비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 시장 정보업체 '콘피넨셜 이모빌리아리우'는 리스본 내 주택 등 임대료가 2015년 이후 65% 올랐고, 매매 가격은 137%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카사파리'는 지난해 해에만 평균 임대료가 전년 대비 37%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프랑스 파리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현재 리스본에서 방 한 칸짜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1350유로(약 191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포르투갈의 근로자 절반 이상이 월 1000유로(약 142만원)도 벌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8.2%에 달할 정도로 포르투갈의 경제 사정은 좋지 못하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치솟는 집값, 이어지는 물가 상승으로 포르투갈에서 젊은 세대를 비롯한 각 계층이 고통받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OPEC+ 하루 116만 배럴 추가 감산... 미국 "경솔하다"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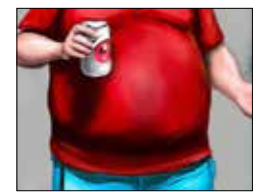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석유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국과 사우디 등 산유국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OPEC+ 회의에서 결정된 대규모 감산과 별도로 실행되는 추가 조치다. 올해 3~6월 50만 배럴 감산을 예고한 러시아는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성명을 내고 "책임 있는 원유시장 참가자로서 러시아는 올해 연말까지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C+의 기습적인 감산 방침이 발표되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CNN에 따르면 3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4.8% 상승한 83.73 달러를 기록했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4.9% 오른 79.36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감산은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은행권 위기와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 따른 조치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다. 알리 타센 에너지 애스펙츠 수석 원유 분석가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OPEC+가 금융 위기로 인한 수요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감산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OPEC+의 감산 소식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안드리아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감산은 경솔하다"며 "원유 생산·소비국과 협력해 휘발유 가격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고물가를 잡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산유국을 대상으로 증산을 요구해 왔다.

'똥뿔, 살 떨리는 순간' ... 획기적 비만치료제 나오나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일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신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마운자로(Mounjaro)'라 불리는 이 신약은 시판 중인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선점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체중 감량 약물의 '킹콩'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운자로를 소개했다. 체중이 104kg에 달하는 비만 환자는 17개월 동안 진행된 마운자로 임상 3상 시험에서 23kg 가까이 감량하는 효과를 냈다. 72주 차 체중 감소율은 최대 22.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최대 17%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이 신약은 인체 내 호르몬인 GLP-1(Glucagon-like peptide-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타이드)에 동시에 작용해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운자로는 원래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발병하는 제2형 당뇨병의 치료제로 개발됐다. 이 신약은 혈당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를 극대화해 비만 치료제로 추가 개발된 것이다. 일리의 최고의료책임자(CMO) 다니엘 스코브론스키는 "그동안 어떤 비만 치료제도 이처럼 큰 효과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리는 이날 말 FDA에 승인을 신청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마운자로는 조만간 매출 상위권에 있는 기존 치료제들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와 같은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인 '오젠폭' 두 약물을 통해 지난해 100억 달러(약 13조15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마운자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위장질환 등이 거론된다. 위고비와 오젠폭 역시 비슷한 부작용이 보고됐다.

美 내슈빌 총기사건에 분노한 민심

미국 테네시주 하원의원들이 3일(현지시간) 주도인 내슈빌에 위치한 주의회로 입장하자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총기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종이 피켓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 커번트스쿨에 난입한 28세 백인 여성이 돌격소총 등을 난사해 9세 학생 3명과 성인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129번째 총기에 의한 대량살상 사건이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67. 이관목 (1883-1943)

이관목(李觀默)은 1883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중퇴하였고 그의 아내 이상순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당시로는 엘리트에 속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와이로 이주하여 가와이섬 막가웰리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1906년 6월에 송 건, 홍종표, 이형기, 고석주와 함께 그는 배운 사람 담게 실력 양성고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자강회를 결성하여 한인 2세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관목의 선교 사역은 1909년 3월에 개최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김이제 목사가 파송된 가와이섬의 각기하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되면서다. 그는 이듬해 3월에 위의 교회 권사와 호놀룰루 편지봉 길에 있던 한인소년학교 교사로도 파송되었다. 교장은 하와이 선교연회의 존 와드만 감리사의 아내인 메이미 H. 와드만 부인이었고, 교감은 한인 프랭크 L. 이였으며 교사는 민찬호도 있었다. 이듬해에도 한 CM과 최KM과 함께 이관목은 교사로 파송되어 기숙사 사감을 겸임했으며, 민찬호 목사가 파송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도 파송받았다.

1912년에 이관목은 2년째 지방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하와이 선교연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2년 후에도 한인소년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재직했다. 그는 1915년에 오아후섬의 가이우구와 와일누아에 있는 한인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았고, 이듬해 2월까지 한 해 동안 성인 10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어린이 13명에게 어린이 세례를 주었고, 12명의 어린이가 훈련받아 입교하여 1916년 2월에 84명의 성인 세례교인과 9명의 학습교인이 있었으며, 엠윗 청년회에 15명이 등록하였고, 주일 학교는 한 곳에 있었는데 직원과 교사가 6명에 등록된 학생은 30여 명이었으며, 예배당이 세 곳에 있었고, 이들은 1,400달러에 해당했다.

이관목은 1916년 2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목사 시험에서

70점을 맞아서 집사 목사로 안수받고 호놀룰루 한인소년학교 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2년 뒤 3월에 모인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에서 그는 A.W. 레오나드 감독으로 부터 박재환, 카메노스키 타나가와 함께 장로 목사로 안수받아 정회원이 되었다.



hilro 한인감리교회

1919년에 이관목은 하와이섬 hilro 구역으로 파송 받아 hilro에 거주하면서 hilro 인근 한인감리교회를 섬겼고, 하와이 선교연회가 한국어로 발행하던 한인교회보 hilro 지사도 맡게 되었다. 1921년에는 hilro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를 맡아 섬기다가 2년 뒤에는 hilro 한인감리교회와 가마구아 한인감리교회를 맡아 섬겼다.

1925년에 hilro 한인감리교회는 한국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동포를 구제하기 위하여 평양 남산현 교회의 오기선 목사에게 일화 200원을 보냈고, 그해 7월에 본 교회 청년회가 서재필 박사와 함께 유역겸과 김양수를 초대하여 서 박사의 강연을 들었다. 이듬해 하와이 선교연회는 이관목에게 사례비로 240달러를 보냈고, hilro 구역에 두 명의 지역적 인 공황과 이로 인한 실적이 하와이에도 불어 닥쳤으나 교인들의 경건 생활과 성수 주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소망하며 기도했던 대로 하와이 선교연회의 2,500달러 보조에 힘입어 온 교인이 정성을 다해 1930년 5월에 예배당을 준공하고 그달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헌당식을 거행했다.

1933년에 이관목이 새롭게 교회 방향을 도모하였는데 한인 목사들 사이에 불온한 소문이 있었다. 그레

서 감리사 푸라이 박사가 순행 길에 본 교회를 방문하여 대부분 교인이 이관목의 목회를 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목사와 교인이 영적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섬길 것을 당부하였다. 그해 5월은 매우 바빴다. 엠윗 청년회가 회장에 김세라, 전도국에 김양수, 인제국에 최순이, 학문국에 김순이, 교제국에 김순복, 통신국에 이원태, 회계국에 한도원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프라이 감리사가 방문하여 설교한 후 계사회를 개최하여 전도사에 심상헌, 김봉서 그리고 김묘연, 권사에 김창운, 주일학교장 대리에 김순복, 청년회장에 김세라, 유사에 피흥선과 이정근, 탁사에 전익서, 고성화, 김원섭 그리고 오영식, 속장에 안선도와 김베드로를 임명했고, 수입은 308.77달러였고, 지출은 301.71달러였으며 잔액은 7.6달러라는 재정 보고를 받은 후 이관목이 프라이 감리사를 모시고 학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갔다. 감리사가 설교하고 성만찬을 인도한 후 계사회를 개최하여 전도사에 장영환과 전세우, 권사에 유춘영, 주일학교장 겸 속장에 이옥산, 유사에 김신우, 탁사에 최봉탁, 임성만 그리고 황수경을 임명하고, 청년회장 최의선과 재정 잔액 8.20달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달 31일에 김베드로의 사회로 졸업생 축하식이 본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초/중학교 졸업생 여러 명에게 화환을 목에 걸어 축하하였고, 다과회도 열었다.

1934년 2월에 교회와 부인회 주최로 이관목 목사 15주년 사역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교회는 이관목 내외에게 화환을 걸어 환영하고, 김봉서 전도사의 환영사에 이어서 이관목의 답사가 있었다. 그달 말에 이관목은 주일학교 임원과 청년회 임원과 찬송대원을 소집하여 새해를 맞아 박민숙, 김세라, 김수복 그리고 박스텔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고 청년회도 더욱 힘을 다하여 교회를 돕기로 하며, 찬송대의 조직을 개편하여 주장에 박민숙과 심나득을 선임하고 대원 14명도 임명하였다. 3월 첫 주일 저녁에 엠윗 청년회가 모여 회장에 김순복, 전도국장에 최순이, 인제국장에 김마리아, 학문국장에 김세라, 통신국장에 최의선, 교제국장에 박스텔나 그리고 회계국장에 김순이를 선출했다. 그달 셋째 주일에는 이관목의 사회로 임원회를 열어 전과같이 자급하기로 하고, 각 임원이 자주 교우를 심방하여 더욱 친선을 돈독히 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로 하였다. 그달 마지막 주일에 해변에 나가 야외예배를 드린 후 각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여러 가지 유희와 해수욕을 하고 오후 3시에 마쳤다. 그해 8월 첫 주일 저녁에 푸라이 감리사가 방문하여 설교한 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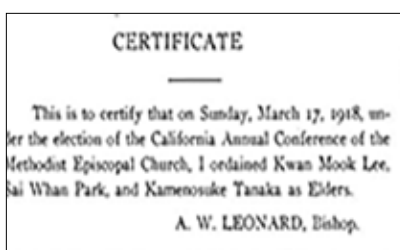
관목과 함께 성만찬을 인도하였고, 감리사가 계사회를 열어 유사 피흥선의 보고를 받았는데 수입은 117.4달러였고, 지출은 108.54달러여서 잔액은 8.50달러였고, 주일학교장 김세라와 청년회장 김순복을 계사회 회원으로 허임하였다. 그달 20일 저녁 7시 반에 찬란하게 단장한 본 예배당에서 이관목의 주례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 교회 전도사 심상헌의 아들 라득과 한장순의 딸 텔마가 풍금 소리에 따라 입장하여 결혼식이 있었고, 예식을 마친 후 친교실에 모여 예비한 다과를 나누었다.

그해 이관목이 섬기는 hilro 구역의 학갈나우 한인감리교회는 4월 1일에 부활주일을 맞아 교인 일동이 hilro 해변에 나가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준비한 오찬을 나누는 뒤 놀다가 저녁에야 교회로 돌아갔다. 그해 8월 첫 주일에 프라이 감리사가 학갈나우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에서 설교하였고, 이시화의 11번째 자녀인 경필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성찬식을 인도하였고, 계사회를 열고 전도사 주원여와 속장 최의선을 임명했다.

1935년에는 hilro 한인감리교회에 김봉서를 전도사로 파송하고, 학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책임 전도사로 전세우를 파송했다. 그해 3월 주일 아침 예배에서 이관목의 주례로 피봉순과 피흥선의 딸 피옥년, 심나득의 아들 영일, 김피터의 딸 나오미, 김병철의 아들 상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달 22일에 내선 총무 폴스택 박사가 방문하여 자신이 건축에 힘쓴 예배당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은 후 이관목, 김세라, 김수복과 함께 화산의 각저 경치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해 9월에 임진호의 셋째 딸 은숙이 호놀룰루 상업학교에 입학하고, 그곳 김신일 집에서 하숙하였다. 2개월 뒤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임두화 목사가 방문하여 그를 앞세워 이관목이 hilro 교회와 학갈나우 교회로 인도하였고, 임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교인들을 위로하였다. 그달에 학갈나우에 거주하는 차윤명과 최매리가 결혼하였으며, 치과 의사 김영수는 득녀하였고, 산모와 유아는 건강하여 큰 기쁨이었다.

라나이 한인감리교회

내분으로 1936년에 hilro 한인감리교회 교인이 양분되어 목회가 어려워져서 이듬해 이관목은 라나이 한인감리교회로 전임했다. 1941년에 임원하였다가 수혈한 후 차도가 있어 그해 9월에 퇴원하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달에 호놀룰루 제일 한인감리교회에서 사역하던 아펜젤러 박사가 방문하여 환영회를 열었는데 한국어로 한국에서 겪은 경험



정회원 임명장



hilro 한인감리교회 헌당식 (1930년)

담을 소개하여 100여 명의 교인이 기뻐하였고, 이후 사택에서 교회 직원과 함께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담화하였다. 다음날 주일에 배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한 아펜젤러의 설교를 듣고 교인 130여 명이 크게 은혜를 받았으며, 찬양대에서 박사에게 화환을 걸어드렸고, 이날 오후에 부인보조회 주최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환영 만찬회도 있었는데 크게 수고하였다 하여 이삼퉁이 10달러를, 이진호와 최삼소가 각각 5달러를 부인 보조회에 기부했다. 다음 달 초에 이시화의 삼남 경호와 유웰렌의 결혼식을 주례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이관목은 휴가차 와하와에 거주하는 친구를 방문하였다가 주일 아침 예배에 안창호가 섬기는 와하와와 교회를 방문하고 요한복음 3:16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했다. 그해 추수감사주일은 성대했다. 준비한 각색 과일과 떡과 교인들의 헌금이 강단에 진열한 가운데 남녀 학생들이 찬송과 시편 낭독을 하였으며 이관목은 '미포에 거주하는 우리는 특별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예배한 후에 부인들이 준비한 야찬을 온 교인이 나누며 답소했다. 1942년 3월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한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 세례교인이 45명이었고, 성인 세례교인이 47명이었다.

아내 이상순이 1943년 6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병세가 발전하여 그해 8월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아내의 소천 3개월이 되던 9월 11일에 6명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 둔 채 환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0월 17일에 하와이 선교연회 주최로 호놀룰루 제일 한인감리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했다. 푸라이 감리사는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 하와이 선교연회에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잃었다고 애석해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3-99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 오후 8:00 태양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벤틀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탄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유지,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largo.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E M 베: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교회: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681-9235, www.koreanp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일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 오후 8:00 토요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창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pc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7)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7장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1)

* 교리 5: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심을 아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거듭해서 명령하시며 간절히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 있는가? 우리 중에 아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에게로 돌이키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자기 피조물에게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반드시 내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 또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명령인 동시에 권면이다.

*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지금까지 사람의 귀에 들렸던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아직 멸망의 상태에 갇혀 있다. 여기 여러분에게 제공된 자비가 있다. 돌이키라! 그러면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다. 모든 무지하고 부주의한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세속적인 자들,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 술주정뱅이들, 포주들과 거짓 맹세자들, 악담하며 비난하는 자들, 중상모략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으며, 영광의 소망을 가지지도 않으며, 천국의 기쁨 보다는 세속적인 번영과 쾌락에 더 몰두해 있는 자들, 신앙이 있다고 하나 거의 모양뿐인 자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들으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이 전에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산다는 것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시겠는가? 회개하지 않으시겠는가? 더 이상 두 견해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 세상과 육신적 쾌락보다 천국이 더 좋다면 나와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의 보물을 짐과 동물이 부패시키지도 못하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하는 곳에 쌓으라. 또한 마침내 깨어나서 있는 힘을 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히 12:28) 찾으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살며,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이전에 기울였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라.

* 만일 아직도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겠다.

1)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나님께 전혀 회

개할 뜻이 없었다면 화염검(火焰劍)이 길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당신 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 당신과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친구들이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도록 할 수 있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면령을 내리시며 그리스도와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며, 그것을 당신에게 제공해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원하지만 하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눅 14:17)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리 악독하게 범죄했다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던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가) 용서는 이미 복음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졌다.

비록 탕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토록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아들여 팔로 감싸 안고 여러분의 회심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 죄인이여, 만일 당신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계신 두렵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당신을 받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하시어 당신을 위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당신이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당신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천국은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짐승처럼 악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성도들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거짓 없이 회개하면 하면, 주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영혼을 기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도 준비되어 있으며, 약속도 용서도 준비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도 천국도 천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회심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는데도 정신 차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당신은 심지어 멸망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가? 당신은 한 시간을 더 산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회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당신은 무수한 부름과 자비와 재인과 사수를 가지고 있고, 무덤 속에 수많은 자들을 보았는데도 아직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오! 당신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지금 당신에게 제공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2)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당신이 회개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 당신에게 어떤 부름이 들려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부름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두렵게 당신에게 전달되었는가? 또한 그 부름은 얼마나 힘이 나게 하고 기쁨을 주는 부름인가를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결정적인 초청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늘과 땅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것도 현재, 지체 없이 회개하라고 하신다.

(10면으로 계속)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6) 수양회가 계속 돼야 하는 이유

이혼 후 외로움을 심하게 겪던 한 참가자가 아주 어렵게 보이는 분과 재혼을 한 후 저희 모임에 마치 고향을 찾듯 틈틈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알콩달콩 사는 것 같아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자가 되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며칠 전 만났을 때 "해가 거듭되면서 더욱더 함께 지내기가 어렵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교제했었지요?"라고 물었더니, "일년"이라고 대답한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사시사철 교제 후에 결혼할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하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주위에 친구 혹은 지인들과의 대인 관계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지요?"라고 묻자, "거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나는 일 년에 서너 번씩 진행되고 있는 수양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럿이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시내 구경 혹은 근처 산야를 두세 명씩이 짝이 되어 걸을 때, 또 함께 음식을 만들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성품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없이 오랜 기간 살다 보니 달팽이처럼 기어올라 자신에 대한 표현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싱글로 힘겹게 살아온 분 중에 당일 모임에서 잠시 불 때와는 달리 수련회로 함께 지내다 보면, 거친 언어와 동작을 통해서 다른 참가자들을 편치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만이 깔꼼한 장소에서 얘기 나누는 것 이상의 상대방의 진면목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외에도 수양회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흘간 지내다 보면 각자의 식습관과 건강관리가 보입니다. 혼자 사니 타인으로부터 지적받을 기회가 적었던 만큼 체중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한 남자가 스넥을 계속해서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본 분이 충고를 해주었을 때, 표정을 바라는 전혀 고칠 것 같지 않았는데 다음 수양회 때 보니 틈틈이 운동시설에 들렀다 오는 모습을 보여 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다른 한 멤버의 이야기는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하나있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새자녀를 얻어야 한다는 시댁의 힘든 성화에, 남편과 이혼한 한 여성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 당일 모임에 참석해서 돌아가며 얘기를 나눌 때면 '절이나 갈까' 혹은 '곽 죽어버릴까' 등의 말로 그야말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양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던 중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일 많이 하며 자랐기에 교회는 봉사하러 가는 곳인 줄 알았었다'고 말하며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성경과 기도예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사람에게 주는 일등상을 탈 정도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사역의 열매, 특별히 수양회의 유익이구나 하며 찬양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하여 이혼하고, 기억력이 나빠 재혼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며 쉽지 않은 재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부모사역 인도자들에게서는 이들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고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수양회를 계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메리 베순은 187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한 집단농장에 사는 흑인노예 출신 가정의 17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11살 때 미션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 13:32) 이 작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다. 너희도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한줌을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메리는 노예로서 하도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자라서 '나도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는 겨자씨 인생이 되리라'결심했습니다. 메리는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거쳐 시카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흑인을 위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메리베순의 주머니엔 고작 1달러 50센트 밖에

없었습니다. "이 1달러 50센트가 나의 겨자씨다."하며 하나님께 얹드리 기도로 시작하고 심어왔습니다. 이 학교가 점점 발전하여 대학이 되었고 메리는 초대학장이 되어 많은 흑인지도자를 길러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메리 베순을 불러 대공황 뒤에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전국청소년협의회를 조직하여 그녀에게 맡길 만큼 메리는 기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다 끝난 인생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인물,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 흑인이라는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것은 메리 베순이 가진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하셨고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5:13)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PCA 제50차 총회 및 PCA-CKC 제26차 총회

PCA-CKC 주제, '교회의 갱신과 부흥'

PCA(미국 장로교) 제 50차 총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멤피스에 소재한 Renasant Convention Center of Memphis에서 열릴 예정이며, PCA 산하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CKC 제26차 총회 및 수련회는 같은 기간에 멤피스 소재 Holiday Inn Memphis-Downtown에서 열리게 된다.



PCA-CKC 회장 이인승 목사

며, 성경 중심적인 보수적 신학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년에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리게 되는 제26차 PCA-CKC 총회 및 수련회는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란 주제로 서울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를

를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된다. 현재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이인승 목사(새 믿음장로교회)는 "금번 PCA 총회는 50번째가 되는 희년 총회로서 매우 의미 깊은 총회이므로 많은 회원 목사들과 사모들이 참석하여서 큰 도전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특히 PCA-CKC 제26차 총회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금번 총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회원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갱신이 이루어지며,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임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인승 목사(832-264-9566) 또는 inseunglee1954@gmail.com으로 하던 된다.

(기사제공 CKC)



2023 SC MUN에 참가한 KAC MUN 학생들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우수한 성적 거둬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3월25일과 26일 이틀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대학교가 주최한 SC 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2개의 상을 수상해 우수

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SC MUN 대회에는 약 8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실제 유엔총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20명의 KAC MUN 학생들은 UN 회원국 국가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각각 자신이 관심있는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

에 참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결의안을 작성했다.

KAC MUN 학생들은 민디 이(Mindy Yi) 선생과 진이 최(Jeany Choi) 선생의 지도하에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모의유엔 진행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대회를 준비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Eunice Song) 대표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참가한 SC MUN 대회에서 KAC MUN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고,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국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고 미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음원 출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음원이 3월30일 발매됐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를 작사 작곡한 김석균 목사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며 "하지만 성도들의 예배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하나님이 없으며 그들은 마치 종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저 교회에 다닐 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기에 정작 맛보아야 할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으며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강조했다.

김석균 목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고 강조하며 이 곡이 주는 메시지를 만나면 끝난 것"이라 말했다. 이 곡을 부른 강찬 목사는 "성도의 소금이 아니라 진한 맛을 드러내는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평강교회와 서울은연교회에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강찬 목사는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영국을 비롯하여 남미까지 20여 개국을 순회하며 찬양강증집회를 가졌다. 대표곡으로는 섬김, 하늘을 봐, 십자가, 사명자, 주의 길,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은혜로, 눈물 없이, 은혜 등이 있으며 최근 강찬 20주년 베스트앨범이 출시된바 있으며 유튜브 강찬 TV(www.youtube.com/강찬TV)를 운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 사역문의: ccmkangchan@hanmail.net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음원이 출시되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목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종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비스소망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동부교계 기사판

갈보리순복음교회, 김기석 목사 초청 말씀 집회
 갈보리순복음교회(담임 백형두 목사)에서 김기석 목사(청과교회 담임) 초청 말씀 집회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4월 30일(주일) 오후 5시에 갖는다.
 ▲문의: 갈보리순복음교회 973-901-1719

뉴저지영광교회, 선우권 목사 영성집회
 뉴저지영광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세종은누리교회 선우권 목사를 초청하여 4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전, 오후 2차에 걸쳐 영성집회를 가진다.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917-853-5544

하크네시야교회, 마이클 심 박사 초청 강연
 메사추세츠 대학교 국제 경제학 박사인 마이클 심 박사 초청 강연이 “미국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4월 30일(주일) 오후 3시에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29-9191

뉴저지목사회, 사모초청행사
 뉴저지목사회(회장 홍인석목사)는 사모초청행사를 5월 21일(주일) 오후 6시부터 현직목사회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하 나임 교회에서 개최한다.
 ▲문의: 총무 오종민 목사 201-638-1627

유스 카운슬 오프 포트리(YCFL), ‘컬러 런’
 유스 카운슬 오프 포트리(YCFL)는 뉴저지 포트리 한인 교회생들과 지역주민들이 4월22일(토) 오전 11시부터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의계축을 돕기 위한 ‘컬러 런’ 자선 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진행은 1마일을 걷거나 달리는 것으로 11시부터 시작하고 5km를 달리기 것으로 11시30분부터 시작 한다. 이벤트 티셔츠 제공은 4월 14일까지 등록한 참가자에게 제공된다.
 ▲문의: YouthCouncilFL@gmail.com

제2회 퀴즈한인교회, 신학 장학생 모집
 퀴즈한인교회(이하 KCQ)에서는 다음 세대 이민교회를 위해 헌신할 목회자 후보와 선교사 후보 신학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미국 내 거주하며 Full-Time으로 정규 신학교를 등록한 재학생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3,000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KCQ에서 개최하는 장학금 수여예배 및 뉴욕 Field Trip, 수양회와 교역 프로그램(5/10-15)에 참석해야한다. 제출 마감일은 4월8일까지. 제출서류는 온라인 지원신청서, 추천서(목회자 및 교수) 2부, 자기소개서(2장 이내), 사역계획서(2장 이내), 재학 증명서, 성적증명서이다. 온라인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info@kcqny.org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이한석 목사 (917)-975-0832, hanseok.lee@kcany.org



‘뉴욕배재동창회, 지진성금 전달’

뉴욕배재동창회(회장 유규 현)는 4월1일 임원들과 함께 오순절성경교회(담임 최길종 목사)에서 뉴욕교협에 “지진을 당한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터키 및 시리아 지진 성금 \$2000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 당신은 하나님과 다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알며,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요 10:27,28). 만일 당신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감각이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다. 누가 감히 불순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암 3:8). 하나님은 당신이 농담하거나 함께 노닥거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가사체를

뒷받침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행 26:14).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당신의 귀를 틀어막으려 한다. 이보다 더 잘못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흔히 여감을 받지 아니하시니나니”(갈 6:7). 사람은 누구든지 만흔히 여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여러분의 지붕에서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낫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히 10:29).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히 10:31).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듯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투시겠는가?
 yoonsuklee@hotmail.com



부활절연합새벽예배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친 후 사진촬영을 했다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3차 준비기도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미 준비한 숫양”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위한 3차 준비기도회가 4월3일(월)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목사, 권캐더린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아름답게 준비되어 교계가 한마음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도나이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이스라엘 목사(회년준비위원장)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권캐더린 목사(부활절준비위원장)가 기도했으며 한재홍 목사(중경회장)가 “부활신앙(창 22:7-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

받았던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순종이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숫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 모두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삶 속에서, 목회에서 충성되어 주님의 일만하면 된다”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송윤섭 장로(회계) 헌금기도, 김홍배 목사(서기) 특송이 있은 후 특별합심 기도 시간을 갖고 박태규 목사(할렐루야준비위원장) ‘2023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위하여’, 김영철 목사 ‘고난주간 금식기도를 위하여’, 임지운 목사(기획위원) ‘차세대와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전희수 목사(여성목회자위원장)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제1회 독실민족사생대회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우리교회, 제1회 독실민족사생대회 개최

삼일절 기념, “어린 새싹들에게 조국의 의미를 일깨워”

뉴욕우리교회(조원태 목사) 산하 우리한국학교에서는 삼일절 기념 제1회 독실민족사생대회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3월 25일(토)에 개최했다. 본 대회는 제104년 삼일절 기념을 맞이하여 애국지사 김독실 할머니의 삶을 기리며 참가자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의미를 조명하고 조국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뿌리내릴 인재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제1회 독실민족 사생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첫 대회에는 뉴욕일원 27명의 어린이(초등학교 1학년~5학년)들이 참가했는데 절반은 뉴욕우리교회 밖의 어린

이들이었다. “한반도의 과거 삼일 독립운동 또는 미래의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각종 분야(시, 산문, 그림일기, 수필, 그림)에서 한글이나 영어로 참여했다.
 수상자와 상금은 △대상(독실상) 1명(강재인) 상금 \$1,000 △우수상(민족상) 2명(김태양, 백하민) 각 \$500 △장려상(평화상) 3명(나엘, 백하윤, 홍한결) 각 \$300이며,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주었다. 대상인 독실상을 받은 강재인 어린이는 만화나 영화같이 스토리 있는 작품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정리: 김재상 기자)

베이스이드장로교회, 뮤지컬 사도바울

베이스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사도바울 뮤지컬 공연이 3월25일(토) 오후 7시, 26일(주일) 오후6시, 베이스이드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뮤지컬 1막은 Be Like Jesus, Opening, 잡아라!, 엄마와 딸, 스테반의 노래 등이 연주되었다. 2막은 아나니아와 사울의 노래, 증인, 3막은 Transition 3 내주는 살아계시고, 4막은 주님만 의지해, 사랑이 넘치는 마을, Instrumental, To Timothy, 바울의 죽음, 주기도문, Finale 등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1막 ‘Be Like Jesus’와 3막 ‘내주는 살아계시고’를 제외한 모든 곡은 직접 만든 곡으로 구성되었다.
 이종식 목사는 “이번 뮤지컬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뮤지컬”이라며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신앙이 무뎠던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

뉴욕늘기쁜교회 2023 선교부흥회

일상의 삶을 통한 비범한 삶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 ‘2023 선교부흥회’가 3월31일(금)부터 4월2일(주일)까지 조용성 선교사(튀르키예)를 강사로 개최됐다.
 김홍석 목사 사화로 시작된 4월1일(토) 오후 8시 예배는 정창택 목사가 기도했으며 글로리아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조용성 선교사는 “하나님과 동행: 선교행복(창 5:21-24, 히 1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에녹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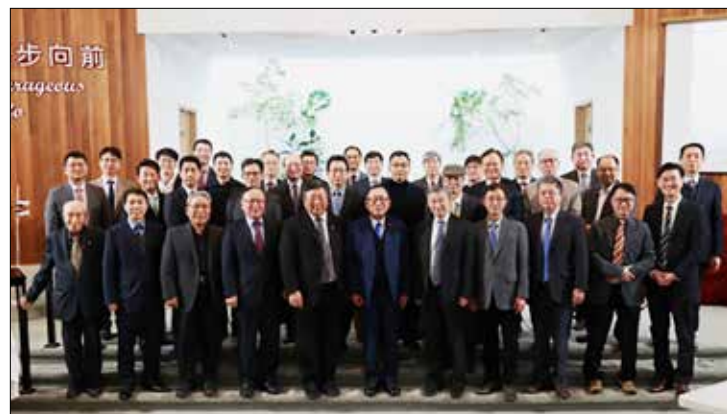
한다는 것은 보조를 잘 맞추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가 충실해야 한다”며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의 자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삶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인 목사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늘기쁜교회 2023 선교부흥회



노회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가미노회 제 76회 정기 노회 개최

5인 장로고시 합격, 이상원 전도사 목사고시 합격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가미노회(노회장 천영일 목사)가 3월 14일(화)에 76회 정기노회를 가졌다. BC주와 알버타주,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를 포함한 교회들로 구성된 카를 포함한 교회들로 구성된 가미노회는 밴쿠버 주바라기교회(천영일 목사 시무)에서 노회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와 성찬은 전 노회장 고철주 목사(캘거리중앙장로교회)의 예배 인도와 노회장 천영일 목사(밴쿠버 주바라기교회)의 ‘너희는 먼저’(마태복음 6:33)를 주제로 설했으며 배세원 목사(밴쿠버 제일장로교회)의 성찬 인도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회무처리에서는 ▲앵커리지 열린교회 유재일 목사의 시무 사면 청원과 동시에 원로목사 추대청원 및 임

시당회장 청원 ▲함성주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캘거리 에베셀교회 지광이 목사의 시무 사면 ▲배세원 목사(에드몬튼제일장로교회)의 청빙청원과 노회가입 ▲주석환 목사(에드몬튼소망교회)와 황상필 선교사 노회 가입 ▲주석환 목사가 시무하는 에드몬튼소망교회 노회 가입 ▲밴쿠버 목양장로교회의 노회 탈퇴 통보 또한 본 노회에 접수되었다. 그 외 이상원 전도사가 신청한 목사고시와 캘거리제일장로교회에서 청원한 장로고시가 시행되어 강우제, 김용운, 이준엽, 홍지선, 황성우 안수집사들이 장로고시에 합격했고 이상원 전도사가 목사고시에 합격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뮤지컬 사도바울을 공연하고 있다

게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다.
 뮤지컬 연출을 담당할 김유신 장로는 “사도바울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기도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홍현숙 기자)



LA 챔버 콰이어 단원들이 2023 봄 콘서트를 마치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LA 챔버 콰이어 2023 봄 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LA 챔버 콰이어(지휘 이정욱 장로) 2023 봄 콘서트가 1일(토) 오후 7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Only Jesus'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정욱 장로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열리게 된 LA 챔버콰이어 콘서트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콘서트 주제인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저희 공연을 통해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Jesus bleibet meine Freude, You are the Christ, I've Just Come from the Foundation, 선한능력으로, 주 함께 살리라 등을 불렀으며 강소연 부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가, Ride On, King Jesus를 불렀다. 한편 이날 소프라노 이영주, 애니 김, 엘토 심현정, 테너 백동휘가 찬조 출연해 공연을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부에나팍교회 양영자 선교사 초청 간증집회 가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부에나팍교회(담임 김성남 목사)는 양영자 선교사(WEC 국제선교회) 간증집회를 2일(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가졌다. 김성남 목사 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박근수 집사가 기도했으며 JOY만 학생들이 특송했다. 이어 양영자 몽골 선교사가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시 7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영자 선교사는 “본문말씀을 보면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나 자신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오신 그분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 선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탁구선수생활이야기 올림피아드 획득과 은퇴의 과정,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해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 방

황을 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 그리고 회복 후 몽골에서 선교를 했던 이야기와 현재 사역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양 선교사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이 주는 유익도 있었다”며 “신앙의 방향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비록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록 우리가 삶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 올리시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남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부에나팍교회 양영자 선교사 초청 간증집회를 마치고 양영자 선교사 부부가 교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50주년 기념부흥회에서 류응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50주년 기념부흥회 “한번 사는 인생 전능자의 손에 내 삶을 올려드리자”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 창립50주년 기념부흥회가 “한번 인생”이라는 주제로 3월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했다. 프라미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강현 목사 사회로 시작된 26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김준섭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숙영 권사가 성경봉독했으며 류응렬 목사가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께 맡겨라(사사기 3장31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류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류명명 발달 과정이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토인비는 ‘일류명명은 좋은 환경에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발전했다’고 말했다”며 “일류명명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언제나 고난을 뚫고 일어난 것이 기독교역사이다. 초대교회역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순교의 재물로 바쳐졌으며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는 비록 보잘 것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게 된 것처럼 한번 사는 인생 전능자의 손에 내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인생으로 되어 지게 하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위기의 시기라고 말한다. 지나간 기독교역사를 볼 때 위기의 시기에 기독교는 무너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내

손위에 주어진 지휘봉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명품인생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김준섭 목사가 응답찬양과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류응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클레어몬트신학대 캠퍼스 이전한다 새 캠퍼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이 웨스트 LA에 있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로 캠퍼스를 이전할 예정이다. 새 캠퍼스 위치는 UCLA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이며 가을 학기부터 새 장소에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CST 임시 총장인 그랜트 하기야는 클레어몬트 동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장소를 이전해도 현재 학위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학교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교 측은 또한 150주년을 향해 계속 나아가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은 포모나, 스크립스, 클레어몬트맥케나, 하버머드, 피쳐 칼리지와 있는 5개 학부 리버럴아츠 칼리지와 2개 대학원(클레어몬트 대학원, 켈 대학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 칼리지와 약 10년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나온 것이다. 두 기관은 CST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권을 가지며 공정시장 가치로 가치를 계산하기로 규정된 과거 협정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CST는 2015



ICMM 주최 비영리단체 세무보고 무료강좌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ICMM 주최 비영리단체 세무보고 무료강좌

비영리 단체 세무 보고 및 Property Tax 면제 신청 무료 현장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ICM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4월 1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 1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는 ICMM대표이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수인 구자혁 목사. 구자혁 교수는 “세금 면제 제도는 IRS code section 501(c)(3)에 의해서 미연방세금보고로 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비영리단체는 연간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일 때는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일 때는 해야 하며 25만불 이상은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되는 경우 감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특별히 수익을 판매된 것으로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수익을 도내이션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3년간 연속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이 철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가 자산을 가질 경우 25만 달러를 넘어갈 때 약식양식이 아닌 정식양식으로 된 서류를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도내이션을 받았을 때도 5만 달러 이상 받게 될 때는 세금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23 남가주 교회대항 족구대회

남가주족구협회(회장 제이슨 오)가 주최하는 2023 남가주 교회대항 족구대회가 오는 22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사우스게이트 팍 테니스코트(9358 Hildreth Ave, South Gate, CA 90280)에서 열린다. 참가복장규정은 하의 반바지 착용이며, 축구화는 착용금지된다. 이번대회 참가자격은 남가주 소재 각 교회 교인이며 참가방법은 신청서(감독, 선수 명단 포함)를 오는 17일(월)까지 카카오톡(213-500-7447)이나 이메일(jasonhoncheony@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양식은 카카오톡에서 받으면 된다. ▲문의: 남가주 족구협회장 제이슨 오(213)500-7447, 카카오톡, jasonhoncheony@gmail.com

제6회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공연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단장 이사효, 지휘 제갈소만) 제6회 메시아 정기공연이 8일(토) 오후 5시 하시엔다한인감리교회(담임 채효기 목사 15653 Newton St, Hacienda Heights, CA)에서 열린다. ▲문의: (818)741-8260

나성서남교회 파트타임 교역자 청빙

나성서남교회(담임 최권능 목사)에서 초등부(Elementary School) 교역자(Part-timer)를 청빙한다. 자격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or 아동교육을 전공한 이증언어(영어 및 한국어)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 첨부), 신앙 간증문, 최근 설교 1편 (비디오/오디오 파일 혹은 온라인 링크), 추천서 1부이며 제출서류는 이메일(ksw7193@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지원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심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문의: kcs7193@gmail.com, (310)719-7193

국제크리스천 채플린협회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국제크리스천 채플린협회(CCFMI, 치프 전모세 목사)는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주제로 제2차 협회 교육을 실시한다. 한미가정상담소에서 열리는 이번 전문가 교육과정은 오는 4월 17일, 24일,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린다. 수강료는 연방 정부 후원으로 무료이며 과정 이수 후 주정부가 인증하는 과정 이수 수료증을 받는다. 대상은 국제크리스천 채플린협회 회원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등록은 4월 10일에 마감하며 http://tinyurl.com/DV40hrs로 접속하면 된다. ▲문의: 전모세 목사(714)501-6613



올가리노 대표 백영번씨 부부(우)와 성금은 전달 받은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목사(좌)

올가리노, 튀르키예 지진 성금 5천불 월드쉐어에 전달

침구류 전문기업 '올가리노'(대표 백영번)가 4일(화) 정오,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에 튀르키예 지진 성금 5천 달러를 전달했다. 올가리노는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3월과 4월 수익금의 10%를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으로 전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강태광 목사는 “튀르키예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때는 1961년이며 현재 180여 교회가 있다. 하지만 개신교 성도숫자는 80여명에 그치고 있고 교회역시 건물만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진성금은 현지에서 지진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타이니 하우스를 건축하는데 사용되

될 것”이라 말했다. 타이니 하우스는 조립식 하우스이며 현재 40채가 지어졌다. 월드쉐어 USA를 통해 전달되는 성금은 새로 지어질 타이니하우스 건립에 사용되며 현지에서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하는 3명의 사역자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포함되어있다. 타이니 하우스 한 채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천달러 정도이다. 백영번 대표는 “더 많은 비용을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전달된 성금이 튀르키예 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어려움 속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생명의 말씀사 전인철 목사 별세

전인철 목사(오렌지카운티 말씀사 사장, 레저월드 담임목사 역임)가 지난 29일(수)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6년전 암을 발견하고 수술후 완치되었으나 지난해부터 이 병이 재발하여 전이되면서 결국은 골수암으로 번져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1973년 생명의말씀사에 입사한 고인은 1987년 도미하여 생명의말씀사 미주 본부장을 지냈고 2000년에는 오렌지 생명의말씀사를 설립하고, 아틀란타와 캐나다 밴쿠버 지사를 설립, 사업을 확장했다. 한편 기독교서점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한인기독교연회 협회(세기연)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행사를 꾸준히 후원해 왔고 피오피코 도서관 후원회

장을 역임했다. 또 서점을 운영하면서 실비치에 있는 은퇴촌에 리저월드한인교회를 개척, 담임목사로 섬기기도 했다. 고인은 관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TS에서 수학한 후 한국에서는 예장합동석관중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장례예배는 4월 11일(화) 오후 1시 다우니에 있는 거주 장의사에서 열린다. ▲문의: 오렌지 생명의 말씀사 (714)530-2211.



고 전인철 목사



외로운 기독교학생들에 건네진 도움의 손길 '학교링크사업'

기독교학생-교사-교회-전문사역자 연계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는 '예수담음'(예담)이라는 기독교모임이 있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 특정 시간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모임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힘에 부쳤다.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만 모임을 이끌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처음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던 학생들은 하나 둘 모임을 떠나기 시작했다.

4일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코로나팬데믹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자발적인 기독교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부 모임은 다른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의 남다른 신앙과 사명감이 기독교모임을 뒷받침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곳곳에 있다. 주변의 안 좋은 시선과 장소 문제, 리더의 부재 등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학생들만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이들의 모임을 실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부터 좋은교사운동이 기독교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학생들에게 교사, 교회, 전문사역자들

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것이다. 교계에서는 이를 학교링크사업이라 부른다. 좋은교사운동은 수도권에 있는 100여 개의 학교들에서 기독교학생모임을 전수조사한 후 관련 목적을 작성했다. 이후 해당 학교에 있는 기독교사들의 의향을 물은 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했다.

교사들을 만난 학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일정한 모임 장소를 구했고, 교사들의 격려 등 정신적 동력도 확보했다. 모임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속한 지역교회와 전문 사역자들까지 학생들에게 연결됐다. 교회에서는 성경책과 탁자 등 모임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 사역자들은 교사들이 부재할 때 영적 리더 역할을 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기독교모임에 참가해온 이충일(17) 군은 "적박한 환경에서 외롭게 해왔던 기독교모임이 교사, 교회, 전문 사역자들의 도움으로 영적, 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전했다. 김선배 학교복음사역위원장은 "협력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향후 링크사업을 희망하는 기독교모임, 교사, 교회, 전문 사역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석인의 날' 에 박물관·다큐멘터리까지

예장백석의 특별한 45주년 설립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개혁신구교장으로 세계화를 표방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개혁신구교장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

다라는 주제로 17개 영역별 기념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일에는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백석인의 날' 행사가 열린다. 설립자 장종현 목사 성역 45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이며, 전국 110개 노회 대표와 경총총회장, 중진 목회자 등 백석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인다.

다음달 29일에는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45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열고 개혁신구교장 명신학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종현 개혁신구교장명신학 국제포럼 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개혁신구교장명신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개혁신구교장명신학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신학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백석총회는 다음달에 역사박물관 개관, 45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다음세대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석총회는 이를 통해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양병희 45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며 "이런 패시브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45주년을 맞아 백석총회가 다시금 한국교회 연합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수님 부활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전해진 희망의 소식"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 기자회견

오는 9일 열리는 '2023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한국사회에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되며, 전 세계를 향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대표장 이영훈 목사)

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주제는 '부활 생명의 회복과 부흥으로!'다. 서울 중구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에서 드러지며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이 설교한다. 장 총회장은 부활 신앙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성

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뤄가자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도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준비위원회는 "오늘날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희미해지거나 변질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서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과 사명을 따르는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사회와 전 세계를 향한 뜨거운 기도도 이어진다. 이영훈 목사는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또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형제들과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모든 생명을 위해 마음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우리교회 분립 개척 교회 9곳 "시리아 난민 위해 써달라"

한교봉에 지진 성금 1억2000여만원 기탁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은 경기도 성남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에서 분립·개척한

교회들이 지진 피해를 당한 시리아 난민을 위해 써 달라며 총 1억2788만7900원을 기탁했다

고 3일 밝혔다(사진).

성금을 전달한 교회들은 기쁨이되는교회(박재진 목사) 동탄드림교회(이완수 목사) 분당나함교회(최정권 목사) 분당하나교회(김인용 목사) 사림의교회(유병휘 목사) 아름빛교회(김영운 목사) 하나드림교회(인영주 목사) 하남153교회(이진우 목사) 함께그린교회(윤지영 목사) 등 9곳이다.

한교봉 사무총장인 김철훈 목사는 "교회들이 튀르키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 온정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이들 교회의 성금이 좋은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北, 기독교인 '반동분자' 로 교육... 성경 소지로 처벌

북한의 지하교회 존재 확인, 선전용 종교기구 실상 드러나

통일부가 지난 31일 7년 만에 발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를 다루고 있다. 2002년부터 세계 기독교 최대 박해국가로 꼽히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한 해도 과중한 처벌을 받고 기독교를 전파할 경우 사형 등 극심한 형벌을 받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그루터기 신앙 공동체인 지하교회의 존재와 당국이 선전용으로 만든 칠골교회 등의 실상이 드러났다. 북한이 사이버 종교단체와 미신 행위를 주체사상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처벌 수위를 높인 정황도 확인됐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접했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나왔다. 당국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고

육하며 성경을 소지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선교단체들이 주장한 북한의 그루터기 공동체인 '지하교회'가 현존하며 최근 평양에서도 지하교회가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다. 보고서는 2017년 함경북도에 있는 12명의 성도가 선교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갇혔고 나머지 10명은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했다. 2019년 평양의 지하교회 성도 중 5명은 공개 처형됐다.

부고

故 전인철 목사 천국환송예배

리저월드 한인교회 (생명의 말씀사) 전인철 목사님께서
2023년 3월 29일 오전 7시에 향년 77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기에 아래와 같이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고자 부고합니다.

천국환송예배

- 일시: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1시
- 장소: **가주 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9393
- 집례: **한용국 목사** (리저월드 한인교회 담임)

하관예배

- 일시: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3시
- 장소: **로즈 힐 공원**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 주소: **Creekside HTS Lawn**
3888 Workman Mill Road, Whittier, CA 90601
(562)699-0921

유가족

부인 전화숙 사모
딸 전성실, 사위 Rupal Amin, 손녀 Callia Amin, 손자 Eshan Amin
아들 전하는, 자부 아사미
연락처: 714) 606-1033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후 2(주) 저녁 3(월) 저녁 4(화) 오전	국제신학교(T.S) (이사장 강영준) 010-9260-1091 KC Enterprise Blessing 공주 필복교회 (최명자 목사) 010-5353-7756 서울 에바다교회 (정근자 목사) 010-3403-9190 영동회 1배 한국 FUN 목회교회 (이광재 목사) 주회 : 한국기독교 영동회 부흥회 연수원 (대표회장 배용신 목사) (032) 421-4560
6(목) 오후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교육관 주회 : 한미연합부흥사업위원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규범 목사) 010-2238-3999
7(금) 오전 9(주) 새벽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오산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오산시 문화회관 주회 :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신상철 목사) 010-7625-0747
9(주) 오후 10(월) 오후 11(월)~12(수) 13(목) 저녁	김포 김령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부활절 연합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동) 동서울교회 (노희정 신명호 목사) 장/노회 서울 동원교회 (해성철 목사) 청주 안디옥교회 (이창성 목사) 010-8441-0196 성남 주영광교회 (전옥관 목사) 010-2445-1691 주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개척)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제 229차 해외성회 (229th Overseas Assembly)

16(주일) 미국 (USA) 하와이 VISION 교회 (정형준 목사)
16(주일)~20(목) "제6회 세계여성지도자 하와이 컨퍼런스"
6th World Women Leaders Conference in Hawaii
장소 : 미국 (USA)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및 GBS 하와이 방송 rostrum, 현지교회
주회 : 기독교여성신문사 (회장 최금숙 교수, 발행인 대표 김화숙 목사)
협찬 : 미주 기독교방송, GBS 하와이 방송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공동대표장 이기도 목사 최기석 목사)

23(주) 오전 24(월) 오전 24(월) 오후 27(목) 오후	서울 열린교회 (김희중 목사) 010-8633-0190 KAICAM(사) 안수식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분당힐링교회 (02) 3673-1323~6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오산시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회 : 작은자 삼김성교회 (대표회장 양우식 목사) 010-8839-8899
28(금) 오전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mission 선교의 창 (21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못다 핀 꽃송이 같은 선교사 루비 캔드릭

2023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 뜻 깊은 이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 NO CROSS, NO CROWN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체화(體化)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찾았다면 아무래도 옛날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일 것이다. 서울 양화진에는 조선에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기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묘비가 하나 있다. 루비 캔드릭 (Miss Ruby Rachael Kendrick, 1883~1908)의 것이다. 그녀는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25세의 나이에 병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비록 9개월이라는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선교적 여운은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만일 내게 일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1. 생애

루비 캔드릭은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 남 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꿈 많은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캔자스 여자성경학교에 진학

했다. 1905년 6월에 졸업한 그녀는 선교사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선교사 파송 연령제한에 걸리자 교사로 1년, 대학 학부 과정 1년을 수학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착실히 준비했다. 마침내 그녀는 북 텍사스 엠틀 청년회(North Texas Conference Epworth League)의 후원으로 남 감리회 여자 외국선교부 소속 선교사로서 파송됐다. 그녀는

불과 9개월 만이었다. 젊은 나이에 미처 선교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2. 마지막 편지 일부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3. 선교 도전

1908년 엠틀 청년회가 텍사스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있을 때였다. 조선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당시에 편지를 일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선박으로 갔고 다시 미국 내에서는 육로를 통하여 수개월씩 걸려서 전달되었다. 내용인즉, 조선의

이 말이 텍사스 엠틀 청년회 선교대회장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슬픔은 오히려 선교 열정으로 승화되게 했다. 그들 중 20여 명은 루비 친구처럼 자기들도 이방 땅에 가 심장을 묻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4. 평가

루비 캔드릭의 장례예배는 1908년 6월 21일, 주일 아침 8시 30분에 의료 선교사였던 허스트(J.W. Hirst)박사 집에서 드려졌다. 이날 설교는 그녀가 섬겼던 송도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 왓슨(A. W. Wasson)이 했다. 내용인즉, 루비 캔드릭의 죽음은 모두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왓슨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죽음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 그녀의 죽음이 하

였이었으며 실제 삶은 어떠한가? 등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삶을 산 믿음의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그 척박한 시대에 험한단신 여자로서 누가 감히 명은 루비 친구처럼 자기들도 이방 땅에 가 심장을 묻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맺음 말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하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낫설고 물 설은 조선 땅에 와 외롭게 뼈를 묻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녀가 병사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하지만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고 영롱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그녀가 떠난 지 115년이 되었다. 그녀는 지금

선교는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을 요구한다. 루비 캔드릭(Ruby Kendrick)은 조선 땅에 자기 뼈를 묻었다. 오늘 선교의 문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 때가 9월이었고, 11월에 황해도 개성에 도착했다. 조선에 온 그녀는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영학원에서 교사와 개성 남부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맡았다. 루비 선교사는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사역하던 중 이듬해인 1908년 6월 9일에 급성 맹장염이 걸렸다. 당시 개성에는 서양병원이 없었으므로 서울 제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열흘 뒤인 6월 19일 스물다섯 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조선에 온지

어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극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받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주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기후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인심이 넉넉한 조선 사람들을 극찬하면서 하루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으로 꼭 들어왔다. 그 편지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가 도착되었다. 편지는 수개월을 걸려서 전해지지만 전보는 즉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열 명씩, 스무 명씩 조선선교사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눔 나라 확장을 위해 고귀한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우만 여사는 "수 백 명에게 영감이 되어 온 영혼의 소유자 루비 캔드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다. 비록 그녀는 죽었지만 오늘날 그녀는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그녀의 희생적인 삶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생애를 해외선교를 위해 바치고 있다." 그렇다. 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년 수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만 계수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

하늘나라에서 복음의 씨가 발아해 조선 땅을 덮고 오대양 육 대륙으로 그 꽃씨가 날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을까? 한 알의 밀알 원리는 이처럼 송고하고 위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부활의 계절에 루비 선교사의 일생을 생각해보며 뭔가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 그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쓰여 "내 묘비에는 무슨 말이 빠져 지기를 원하는가?"

jrsong007@hanmail.net

CS 루이스 삶과 사상 산책

(1) 왜 C. S. 루이스를 주목할까?

미국의 복음주의 언론을 대표하는 크리스천투데이 투데이 (Christianity Today)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1956년에 복음주의의 지성을 대변하기 위해 빌리 그레함과 칼 헨리등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창간된 언론입니다. 이 크리스천투데이 투데이가 21세기를 열면서 20세기 기독교가 남긴 명저 100권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100권 중에 1위로 선정된 책이 신학자나 목회자 혹은 선교사의 책이 아닙니다. 한 평신도 영문학자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클라이브 스테이플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로 우리에게 C.S. 루이스(C. S. Lewis)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루이스는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 영문학 그리고 영문학사(중세와 르네상스)를 가르친 교수였고, 영문학자였고 공상 소설가였습니다. C. S. 루이스는 탁월한 재능

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헛볼트리니 김진혁교수에 의하면 루이스가 평생 특별한 애정을 갖고 교제했던 친구 오언 바필드(Owen Barfield) 변호사는 다섯 명의 루이스를 접해야 루이스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세 사람은 루이스의 작품 세계를 따라 나옵니다. 먼저 베스트셀러 작가 루이스, 둘째 기독교 변증가 루이스, 셋째 영문학자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의 신앙에 따라 나누면 넷째는 무신론자 루이스, 다섯째 그리스도인 루이스입니다. 이런 루이스를 21세기 기독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위대함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신학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이재근 박사는 최근 의미있는 저서들을 펴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펴낸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는 복음주의(Evangelicalism) 운동

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계에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재근 박사가 펴낸 책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책이 <20세기 기독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20세기 100년간 기독교를 만든 21명의 지도자를 소개하였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C. S. Lewis를 포함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입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아울러 기독교가 백인 중심의 서방 종교에서 모든 인종이 함께하는 세계의 종교로 우뚝 선 시기입니다. 20세기는 기독교의 범위와 영향력 면에서 세계의 종교로 온전히 자리매김했던 시기입니다. 이 20세기 기독교 지도자로 루이스가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변증가로 C. S. 루이스가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의 보수



강태광 목사 (월드세어USA대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또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를 주목하고 그의 존재를 부각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알려진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라는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3년에는 같은 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폭넓은 학문의 세계를 자랑하는 기독교 지식인입니다.

알리스터 박사는 옥스퍼드대학교 및 킹스 칼리지에서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학문 세계를 반영하듯 역사신학, 선교학 그리고 교육학을 두루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과 강의 그리고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상가 10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한 사상가 10분을 소개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이 책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지도자를 소개했는데 모두가 교회사에서 큰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르네상스의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장 칼뱅, 18세기 조나단 에드

워즈, 19세기와 20세기에 신학자인 칼 바르트 그리고 20세기에 평신도 신학자 C. S. 루이스를 소개합니다.

평신도 신학자 C. S. 루이스가 열사람으로 요약되는 2천년 기독교 역사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수많은 부흥 운동 주역들, 복음주의 진영의 영웅들,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했던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제치고 루이스가 등장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변증학자 혹은 전도자로서 C. S. 루이스의 탁월함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그는 읽혀지는 글을 쓰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C. S. 루이스는 방대한 독서와 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메시지 전달 능력이 탁월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둘째는 루이스 본인이 신앙을 거부하고 불신자의 삶을 살 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과 철학을 배우며 신앙의 절대성을 부인하며 방황했던 경험으로 불신자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변증가요 전도자입니다.

셋째로 루이스는 모두에게 수용되는 글을 씁니다. 그의 글이나 논리는 불신자와 기독교 신자 모두에게 수용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달자로 인정받습니다.

Kangtg1207@gmail.com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 (718)662-66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남일현
 141-33 33rd Ave,
 Queens, NY 11354
 Tel. (808)348-4655
 www.epcny.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



생명의 온도로 다시 땅을 살려내다. 봄!
 멈춘 것 같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 부활!

모든 교회마다 샘이 솟아나 흘러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장로교회 담임 이동진 목사와 성도 일동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시다 (왕하 22:1-7) 찬463장

요시야는 여덟 살에 왕위에 올라서 3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요시야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율법 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는 그날새가 행했던 길을 버리고, 다윗의 행위를 좇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황폐했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안의 성전은 황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예배자인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종성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져있다면, 즉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면 속히 재건합시다.

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여호야긴(왕하 24:9) 찬257장

여호야긴은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과 왕족을 사로잡아 가면서 정치적 주권을 장악했고, 용사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면서 유다의 군사력과 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입니다. 원인은 교만입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그의 악행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하는 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권을 빼앗아 오려는 시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겸손의 사람들이 됩시다.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눈에 '매국노'처럼 보였던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달리아를 죽이는 것이 이스마엘의 소견에는 옳아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성전 건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멈추었던 다윗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수 진정한 순종 (왕하 25:22-26) 찬542장

순종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BC 586에 남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생각하

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눈에 '매국노'처럼 보였던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달리아를 죽이는 것이 이스마엘의 소견에는 옳아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성전 건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멈추었던 다윗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목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스 1:1-4) 찬384장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 유다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실하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쫓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4).

금 주의 일을 하면 방해군이 나타납니다 (스 4:1-6) 찬543장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1차 포로귀환단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거절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

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의 역사도 함께 시작됩니다. 사단은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사단의 공격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 따라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잘 가는 중입니다.

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스 6:13-15) 찬518장

닷드네와 스탈보스네와 같은 방해꾼들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닷드네와 스탈보스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다 사람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다리오왕은 악메다 궁정에서 옛 고레스 왕의 칙령 문서를 찾아 성전 건축은 재개되었고, 드디어 성전 건축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행했

습니다. 꼭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룹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기독교교육 (25)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자원봉사자(2)

자원봉사자의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과 동기부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일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봉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에베소서 4:11-12의 말씀처럼 교회지도자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들은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20-21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훈련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모데후서 2:21은 사역을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훈련에 헌신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11에서 훈련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10은 훈련에는, 비록 잠깐이나마,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훈련은 사역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일을 수행하는 기술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람의 능력개발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훈련은 기능의 숙달을 추구하기보다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말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사역에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편하게 느끼는 분야를 확인하고 새로운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훈련은 기술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당면한 일들을 창의적으로 처리해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훈련은 학습의 전이성(transferability)을 개발하여 사역 이외의 분야에도 도움을 줍니다.

훈련은 기존 사역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는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좀더 긍정적인 자세로 반응합니다. 훈련된 봉사자는 변화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며, 유행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에 적응합니다. 올바른 훈련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사역의 미래를 대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 헌신의 지속성을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동기부여란 자극을 주어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과정입니다. 동기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지만, 개인의 감정이 관련됩니다. 개인에 따라 동기가 다

를 뿐 아니라, 같은 개인도 시간에 따라 동기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동기부여가 봉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돕습니다.

자원봉사를 위한 동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인(extrinsic) 것이고, 둘째는 내적인(intrinsic) 것입니다. 외적인 동기는 순간적인 자극입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내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내적인 동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입니다. 이웃이나 공동체를 섬김으로서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이타주의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환원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의무감도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시민의식으로부터 봉사의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 종교적인 신념 등이 내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차원의 내적 동기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오스월드 체임버스(Oswald Chamb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나온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 주님만을 위한 순고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고후 4:5)는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님이 당신과 나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까(빌 3:5-6).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빌 3:8). 그리고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예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자였음을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어 예수님 사랑이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바르게 훈련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사역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서는 10%의 사람이 90%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역에서는 100%의 사람들이 한 분의 청중을 위해 일하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사랑의 동기를 수시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북지점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남지점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예수 다시사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5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 (323)913-4494</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Tel. (213)481-2779 www.srcla.org</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Tel. (213)380-9377 Tel. (213)380-9079</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p> <p>Tel. (949)854-4010 www.bkc.org</p>	<p>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p> <p>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p> <p>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p>	<p>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p> <p>Tel. (808)542-2922 www.ikccah.org</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p> <p>Cell. (213)745-9191</p>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Tel. (323)-737-3009</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p> <p>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p> <p>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p> <p>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Tel. (310)325-4020</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 (310)530-8400</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p> <p>3416 W. 1st St. LA., CA 90004</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p>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p> <p>Tel. (808)585-1859</p>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예수 부활하셨네!

- 모집과정**
1. 학사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 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23학년도 여름학기
 일 시: 2023년 7월 10-12, 17-19
 (서부시간 오후 7시-9시 30분)
 장 소: Zoom

-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선교 장학금(선교 사역자에 대해서는 50%의 장학금이 지급됨)

2023 학년도 Zoom 여름 특강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 과목명: **우리 이웃의 신학들**
(Our Neighboring Theologies)
- 교 수: **이승구박사**
(Ph. 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 일 시: 2023년 7월 10-12 일, 17-19 일
(서부시간 오후 7시-9시 30분)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나눔과 섬김), 『광명의 신학』(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SFC),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SFC), 『전원기의 개혁신학』(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California BPPE 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 목회학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및 선교사
 - 졸업 학점: 36 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2. 신학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학위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 졸업 학점: 48학점 (논문 12 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 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